

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 | <h1>보 도 자 료</h1> <h2>배포시부터 보도 가능</h2> |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작성부서  |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책 임 자 | 권대영 금융정책과장(2156-9710) | 담 당 자   | 고영호 서기관 (2156-9711)     |
|       | 최성일 감독총괄국장(3145-8300) |         | 전수한 사무관 (2156-9717)     |
| 배 포 일 | 2015.7.2.(목)          | 배 포 부 서 | 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3매 |

## 제 목 : 제6차 금융개혁회의 개최

- 한국거래소,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및 상장(IPO)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
- 2016년부터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도입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

### 1. 회의 개요

- 2015.7.2.(목) 07:30 “제6차 금융개혁회의(의장: 민상기)”가 개혁회의 위원, 금융위원장, 금융감독원장 및 자문단 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음

■ 일시/장소: '15.7.2.(목) 07:30 ~ 10:00, 프레스센터 20F 내셔널프레스클럽

#### ■ 주요 참석자

- 금융개혁회의 위원
-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 (자문단장, 분과반장 등)
- 금융위원장, 금융감독원장
- 금융위 사무처장, 상임위원, 금감원 부원장보 등

#### ■ 논의안건

- ①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 → 7.2(목) 14:00 브리핑 예정
- ②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→ 7.3(금) 금감원 브리핑 예정
- ③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 → 7.3(금) 보도자료 배포 예정
- ④ 금융투자상품 판매·운용 관행 쇄신 → 6.30(화) 금감원 브리핑
- ⑤ 금융개혁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→ 7.1(수) 보도자료 배포

## 2. 주요 참석자 발언

-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개혁회의를 시작(3.25일)한지 100일 동안 5차례에 걸친 개혁회의를 개최하여,
  - 「검사·제재 개혁방안」, 「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」 등 약 20여건의 개혁방안을 의결·확정하였으며, 이 방안들이 금융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
  - 「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」과 관련하여 거래소의 경쟁력이 곧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수준을 결정하는 만큼,
    - 거래소 개혁을 위해서 정부와 거래소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 학계·업계의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
  - 「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」은 기존 민원 건수 위주의 단순평가를 개선하여 소비자보호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  - 「보험사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」은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금융당국에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, 향후 운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
-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0일 동안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쉼없이 추진하면서 성과도 있었지만,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언급
  - 현장점검반 운영, 현장 민원의 신속한 회신 등을 통해 처음에는 금융회사들이 반신반의하였으나, 이제는 신뢰가 조금씩 쌓이고 있다고 발언
    - 서베이 조사결과 80%이상이 금융개혁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, 아직까지 체감도가 보통(44.5%)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상황으로 신뢰를 쌓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음

○ 또한, 그동안 금감원의 ‘검사·제재 혁신’, 그림자규제 개선 추진 등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,

-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 뿐만아니라 실무자의 ‘행태’와 ‘일하는 방식’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

○ 「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」과 「보험사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」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과제이나,

- 금융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서 학계·업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

□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「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」과 「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」과 관련하여

○ 거래소 구조개편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,

- 금감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,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

○ 또한, 「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제도」는 사후적인 민원처리 중심의 소비자보호 업무를 선제적이고 사전예방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면서

- 앞으로 금융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음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<http://www.fsc.go.kr>

